

설 분위기 물씬… 손님 발길에 ‘함박웃음’

광주 양동·봉선 전통시장 가보니

선물 주문 쇄도…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너지 손님 전주대비 2~3배 증가…지역경제 활력 기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지역 전통시장에 손님이 몰리면서 침체됐던 지역 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9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시장 입구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시민들은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장만하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 곳곳으로 빠르게 흩어졌다. 시민들은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북구 입동에 거주하는 박명숙씨(72)는 “고민 끝에 이번 설 선물은 김부각으로 정했다”며 “요즘 물가가 부담되지만 가족과 지인들을 생각하면 명절 준비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님이 몰리자 상인들의 표정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건어물점을 운영하는 이명근씨는 “선물용 예약 주문이 늘어 3주 전부터 완도·신안·무안·통영 등지에서 멸치와 김을 미리 수매했다”며 “어획량이 줄어 멸치와 오징어 가격이 해마다 5000원 이상 오르

지만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줘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택배 주문이 급증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한층 분주해졌다. 수산물 가게와 정육점 상인들은 연신 팔을 닦으며 포장 작업에 몰두했고, 오토바이 배송 기사들은 선물 상자를 차곡차곡 싣느라 실 틈이 없었다. 시장 곳곳에서는 ‘산지 직송’, ‘명절 특가’ 문구를 내건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이어졌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30)는 “사과는 6만~8만원, 배는 4만5000~5만5000원대로 지난해 설보다 1만원가량 올랐다”며 “가격 부담이 커 걱정했지만 주문량이 늘어 매출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물량을 확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장을 마친 시민들은 어묵과 호떡, 국밥집 등 먹거리 가게에 들러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담소를 나눴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특유의 정취가 자연스럽게 되살아나



설 명절을 앞둔 9일 광주 남구 봉선시장에서 김병내 남구청장과 공직자들이 사과, 배 등 선물을 과일과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장보기 행사와 주차장 무료개방, 온누리상품권 행사 등을 실시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는 모습이였다.

여기에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해양수산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관계자들은 상인들을 직접 찾아 ‘해누리’ 애플리케이션 사용법과 구매 금액별 환급 절차를 안내했고, 건

어물시장 인근에는 ‘온누리상품권 참여점포’ 안내문이 부착됐다.

같은 날 광주 남구 봉선시장 역시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채소가게 상인들은 활발한 입담과 담을 앞세워 손님을 끌었고, 한 상인은 손님의 요청에 시금치와 숙주나물을 얹어주며 웃

음을 보였다.

봉선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박하권씨는 “참가름과 들가름, 고춧가루를 찾는 손님이 지난해보다 2~3배 늘었다”며 “제값 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설 명절을 계기로 소비가 조금이나마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한수원,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

안전성 확보·4월 초 발전 재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한빛 6호기(가압경수로형, 1000MW급) 제16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는 원전 연료 교체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점검, 터빈 증기 밸브 점검 등이 이뤄진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설비의 종합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전 재개는 정비 완료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4월 초 순 이월될 예정이다.

계획예방정비는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설비 검사와 점검, 정비 등을 수행하는 절차다. 국내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통상 약 18개월 주기로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한다. 영광=정규발 기자 ykjpg9@

경찰, 조선대 농구부 지도자 보조금 횡령 수사

경찰이 학생 선수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운영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조선대 학교 농구부 지도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조선대 농구부 지도자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선수들을 위해 사용해 야 할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등 수 천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회 출전 선수 명단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뒤 일부를 빼돌리거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운영회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보행 안전 실천지수 전국 ‘최상위권’

교통문화지수 ‘3위’…보행자 중심 정책·캠페인 등 효과

광주는 보행자 안전 실천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도약한 반면, 전남은 고령 운전자 비중 등 구조적 한계 속에 정체 흐름을 보였다.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는 종합 점수 84.48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로 종합

해 산출된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는 전년도 9위에서 6계단이나 뛰어오르고, 등급도 B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이런 상승요인의 원동력은 ‘보행행태’였다. 광주는 이 부문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 실천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김민준 기자 minjun.kim@gwangnam.co.kr

준수율은 1년 새 전국 6위에서 2위로 뛰었고, 무단횡단 빈도 역시 15위에서 12위로 개선됐다.

보행자 중심 정책과 시민 참여형 교통안전 캠페인 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남은 80.12점으로 14위(D등급)에 머무르며 뚜렷한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남 역시 보행행태에서 전국 4위에 올랐으나 운전자행태 부문 순위가 전년 7위에서 10위로 하락하며 종합 순위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 내달부터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시행

접수·귀가 원스톱 지원

광주 광산구가 오는 3월1일부터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적기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광산구

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서비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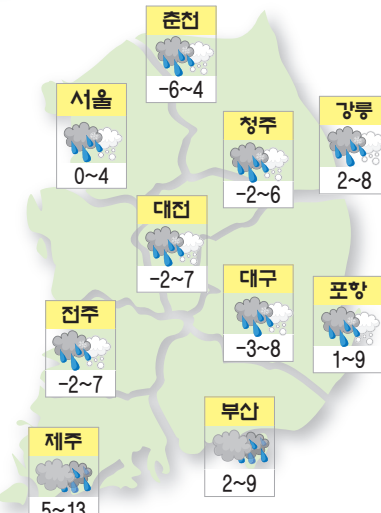
직장 업무, 질병, 출장 등의 이유로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긴급한 경우 전담 아이돌보미가 부모 대신 아이와 동행하며 진료를 돕는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광산구 거주 가정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아이돌보미가 가정이나 학교(어린이집) 등을 찾아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해 접수부터 대기, 진료, 귀가 등 전 과정을 함께 한다.

신청은 광산구 아이돌봄 제공기관(062-942-9332)과 아이돌봄 누리집(www.idolbo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7:24	🌙 맑음	01:40
☁️ 맑음	18:10	☔️ 맑음	11:32



광주	☁️	-1~7
목포	☁️	0~7
여수	☁️	1~7
순천	☁️	-3~8
구례	☁️	-3~9
광주	☀️	
개남	☁️	-2~8
원도	☁️	0~8
흑산도	☁️	4~9
진남	☀️	
고흥	☁️	-3~8
진도	☁️	0~8

목포	일출(교)	07:42 / 19:23
여수	일몰(지)	00:10 / 12:47
	일출(교)	02:07 / 13:47
	일몰(지)	08:11 / 20:13

“직장 내 갑질 파면 정당”

만년 핑...법원이 ‘직원 을 지인의 영리 업 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자원봉사센터 임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 박정훈 재판장은 A씨가 광주시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김치 가공업체에 센터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 2023년 센터장직에서 파면돼.

또 A씨는 대구 출장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에게 운전 을 시키고, 간식으로 과일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공식 출장 신청 후 사적으로 부동산계약을 하고, 직원에게 부동산 차명 계약을 시키거나 일과시간 이후 수차 레 자신이 별도 운영하는 센터로 직원을 불러 전기 수리, 물건 배달 등 사적 업무를 시킨 것으로 파악돼.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 국립공원 조류 조사·연구 보고서

신안 흑산도, 동아시아 철새 이동 핵심 거점

법정보호 29종… 멸종위기·천연기념물 조류 밀집 서식

“천연자산 보전·생태관광 가치 주목”…진드기 주의도

전남 신안 흑산도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법정보호 조류 서식지로 주목받고 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양한 조류가 집단으로 관찰되면서, 흑산도가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거점이자 살아 있는 생태 보고(寶庫)임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9일 국립공원공단이 발간한 ‘2025 국립공원 조류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흑산도 일대에서는 총 221종, 4만3734개의 조류가 관찰됐다. 이 가운데 법정보

호종은 무려 29종으로 확인돼 국내 섬 지역 가운데서도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조류로는 저어새와 흰꼬리수리 2종이 확인됐고,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2급 조류 22종이 관찰됐다.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 역시 원앙을 포함한 14종이 기록됐다.

흑산도는 특히 봄·가을 철새 이동 시기에 조류 다양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 다양성은 5월에 가장 높아 139종이 기록됐고, 월별 개체수는 10월에 2188개체로 정점을 찍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흑산도가 철새들에게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휴식과 먹이 공급이 가능한 핵심 기착지임을 보여준 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조류도 확인됐다. 지난해 4월 흑산도에 서는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번식하는 ‘흰 날개종다리’가 국내 최초로 관찰됐으며, 같은 해 5월에는 히말라야와 인도차이나 반도 일대에 분포하는 ‘검은두견이’도 기록됐다. 이는 흑산도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생물학적 연결



되새



국내 미기록종 진드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흑산도의 이러한 생태적 가치가 보전 중심의 관리 정책과 함께 지역 자산으로서 더 주목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자연 유산을 기반으로 한 생태 연구, 교육, 저밀도 생태관광이 장기적으로 지역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흑산도는 국내의 조류가 교차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어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법정 보호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생태계적인 가치가 풍부하지만 일부 조류에서 진드기가 확인됨에 따라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해의 기원의 진드기가 철새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신안군 흑산도 고정조사구 4개소(진리마을, 배낭기미섬지, 예리 초지, 예리항)에서 포획된 조류 2197개체를 대상으로 20종 61개체 조류에서 진드기 6종 72개체가 확인됐다.

수집된 진드기는 일본참진드기 36개체로 가장 많았고, 국내 주요 토착 진드기인 작은소피참진드기 유충 14개체, 일본참진드기 유충 10개체, 작은소피참진드기 6개체, 몽목참진드기 3개체, 산림참진드기 1개체, 개피참진드기 1개체 순이었다. 국내 미기록종 진드기(Haemaphysalis wellingtoni)도 2024년에 이어 다시 확인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